

# 서울시 “겨울철 심장질환자 주의 필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질병별(병력별)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는 157만9975건 출동했다. 이송환자 수는 95만2202명으로 연평균 31만7400명, 일일평균 869명을 이송했다.

119구급활동 세부현황은 만성질환자 65만8539명, 교통사고 10만1553명, 낙상 등 사고부상 19만2110명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 질병(병력)별 구급활동

**최근 3년간 질환별 구급활동 현황 통계 발표**  
**고혈압 30.9% · 당뇨 18.3% · 심장질환 8.3%**

동 순위는 고혈압이 20만3446명(3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당뇨 12만1414명(18.3%) ▲심장질환 54만697명(8.3%) ▲각종 암 48만201명(7.3%) ▲결핵 2371명(0.36%) ▲간염 2430명(0.3%) ▲알zheimer 1941명(0.29%) 등이 뒤를 이었다.

만성질환자는 12월에 60만18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월에 58만7299명이었다.

만성질환자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12월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고가 많았으며, 이들 질환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 부상 중 교통사고는 10만1553명, 낙상 등 사고부상은 19만2110명이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노약자의 경우 겨울철 낙상사고를 당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도 “겨울철에는 심장질환자 구급활동 건수가 많은 만큼 해당질환을 가진 시민분들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동주민센터(찾동)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채 발행 등 2019년도 예산안 수정하라 서울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계획 수정 등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 광진구 ‘옛 우정사업정보센터’ 청사 재매각

서울 광진구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활용되던 옛 청사가 예정가격 24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청사를 완화된 계약 조건으로 재매각한다고 3일 밝혔다.

소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이 가능한 계약해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매물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동

지난 1월 지양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캠코 관계자는 “이에 인접부지에서 개발 중인 복합업무단지와의 시너지와 동서울타미널 현대화 사업 등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후광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찰 내달 4~18일 온비드에서...계약해제권 부여**  
**지양5재정비촉진구역 지정...매각 예정가 2478억원**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캠코는 중진부동산을 매입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총 7건 중진부동산을 매입하고 4건을 매각했다.

이번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쉬웠던 영역은 인문계열 학생의 52.8%가 사회탐구를 풀었고 자연계열 학생은 39.7%가 수학을 풀었다. 정시 지원 준비를 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수험생 절반에 육박하는 47%가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지원 못 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다. 이어 ‘수시와 달리 3번의 지원기회가 없어 전략 세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9%,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기 어렵다’가 14%로 뒤를 이었다.

정시 지원 계획은 34%가 상향·적정·하향 1개씩을, 30%가 상향 위주를, 28%가 하향 위주를 하겠다고 답해 수능이 어려워 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상향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은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매물은 서울 광진구 지양동 680-81에 자리한다. 기존에 우정사업정보센터 청사로 사용됐지만 지난 2013년 3월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공실상태가 됐다. 매각 예정가격은 2478억1408만원이다.

이번 재매각에 앞서 캠코는 매수자의 부지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

지역공공기관매각조성본부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고3 수험생 78.7% “올 수능,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가 가장 어렵다는 수험생들 반응이 나왔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고3 회원 9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인문계 80%, 자연계 77%가 가장 어려웠던 영역으로 국어를 꼽았다.

반면 수능 전에 실시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45%만이 국어를 선택했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다수를 차지한 39.1%가 수학이라고 답했다.

국어영역은 민유인력 지문과 연계된 31번 문항을 비롯해 긴 지문, 신 유형 문제들이 나오며 현재와 같은 수능시험 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등급 예상점이 80점대로 내려갈 만큼 어려웠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가장 쉬웠던 영역은 인문계열 학생의 52.8%가 사회탐구를 풀었고 자연계열 학생은 39.7%가 수학을 풀었다. 정시 지원 준비를 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수험생 절반에 육박하는 47%가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지원 못 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다. 이어 ‘수시와 달리 3번의 지원기회가 없어 전략 세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9%,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기 어렵다’가 14%로 뒤를 이었다.

정시 지원 계획은 34%가 상향·적정·하향 1개씩을, 30%가 상향 위주를, 28%가 하향 위주를 하겠다고 답해 수능이 어려워 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상향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 2022년까지 찾동에 907명 투입

박원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직접 브리핑

박원순 서울시장(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동주민센터(찾동)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찾동의 4대 추진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 등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개최한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발의할 수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를 2022년까지 42개 전 동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독거어르신 밀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펼친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형성부터 골목밥상·이웃 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까지, 골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또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

아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돌봄SOC센터’는 일상 생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필요시 돌봄전담사(인력) 돌봄대비가 대상자를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요구를 판정한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한다. 시는 우선 내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선 7기 ‘찾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돌봄SOC센터’ 전담인력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찾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지라는 도구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삶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 민선 7기 찾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찾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과감한 인력 확충으로 258명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갈대기 행정의 부정적 효과를 일시에 해결하고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많은 복지들이 순조롭게 흐르기 시작했다”며 “(찾동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했고 동시에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나서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을 살피는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해 찾동은 6세 이상 어린 신 가구를 비롯해 157만 가구를 만났다”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 사각지대도 지워낼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